

9월 과학기술자상 이훈 KAIST 교수

과학기술부는 <이달의 과학기술자상> 9월 수상자로 이훈(53)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.

이훈 교수는 수소를 얼음입자에 직접 저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 에너지 개발에 큰 진전을 가져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.

연구성과는 4월7일자 <네이처>지에 게재됐다.

이훈 교수는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선임연구원을 거쳐 1985년부터 KAIST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9/02>